



한 곳에 매이지 않고 방랑하는 탈권위적 정치학자

유범상_덕성여대 정치학 강사

전인권은 내게 한참 선배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옆'에서 본 적이 없다. 항상 '뒤'에서 그를 경원敬遠하였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옆에서 본 저자'를 쓸 자격이 없다. 하지만 실제 나와 전인권의 만남은 늘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었으며, 사람에 대한 전인권의 태도가 그러한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내가 감히 그에 대해 쓸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나는 그와 대략 세 종류의 만남을 가져왔다. 첫 번째 만남은 '구조적으로' 대등성이 확보된 두 개의 공론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독립신문 강독모임' 이고 다른 하나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격월마다 열리는 '정치평론모임'이다. 나는 두 모임을 통해 전인권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고민을 '옆'에서 듣고 볼 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 두 공론장과 그곳에서 이루어진 토론은 그가 늘 말했던 것처럼 오늘의 전인권을 만든 젓줄이었으며, 그 젓줄의 기원은 전인권 자신이었다. 그는 두 공론장에서 솔직함과 열린 태도로 소통하고자 했다. 그는 말하면서 스스로를 정리하고, 타인의 코멘트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풍부화시켰다. 나는 지금도 전인권이 모임에 나오는 날이면 이상한 설렘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에게서만 나올 만한 이야기가 있고, 그의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의 토론은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전인권과 나의 두 번째 만남은 책을 통한 만남이다. 나는 이 만남에서도 '구조적으로' 대등했다. 저자 또는 연구자는 독자 또는 다른 연구자의 비판에 너그러워야 하므로 나는 그를 마음껏 음미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책을 세 권 읽었다. 《편견 없는 김대중 이야기》, 《아름다운 사람 이중섭》, 《남자의 탄생》이 그것이다.

세 권의 책을 읽는 가운데 나는 세 번 질렸다. 우선 그의 용기와 풍부함에 질렸다. 대통령선거 당시에 김대중을 화두로 책을 쓴다는 것, 비전공자가 화가 이중섭에 대해 장문의 글을 쓴다는 것, 그리고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공론장에 올린다는 것은 학자연하는 내게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함이다. 독립신문강독모임에서 동료들을 상대로 한 솔직함은 비밀이 보장되는 소규모 자리이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예술가를 대상으로, 자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지면을 통해 드러내는 이런 솔직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세 권의 책에 흐르는 기존 정치학에 대한 그의 야심찬 도전에 나는 또 한번 질렸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보〉에 실린 한국관련 논문을 모두 찾아 읽고, 그 논문의 내용을 다른 학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한국 정치학이 '이론

의 과잉화 현상' 과 '한국현실의 왜소화 현상', 그리고 소통 및 논쟁의 부재로 말미암아 '동일한 문제의식의 무한반복'이란 특징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인권은 통상적인 정치학 소재, 예를 들어, 국가, 정당, 계급이 아니라 김대중, 이종섭, 전인권 자신을 다루는 특이한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주제를 서구의 이론에 꿰맞추려 하지 않고, 상이한 주제를 통해 정치세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즉 정치가, 예술가, 가족과 자신을 통해 한국정치를 다면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

책을 읽어 나감에 따라 나는 마지막으로 그가 보편적 지식인의 품모를 갖추고 있음에 놀라고 질렸다. 보편적 지식인은 엔지니어와 달리 소통과 비판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드러내고, 이해하고, 모순에 저항하는 사람이다. 전인권은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하고 세심하게 드러내고 내 안팎의 권위주의에 저항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정치학을 현실에 실천하려는 이 시대의 보편적 지식인이다. 즉 그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세 인물은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전인권은 그 세 사람을 우리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 삼았다. 그가 서로 다른 인물 연구를 통해 포착하고자 하는 것은 극한에서 사고하고 행동했던 그들의 지위와 행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김대중을 통해 지역문제와 맞닥뜨렸고, 이종섭을 통해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했으며, 전인권 자신을 통해 한국의 가족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도달하려고 했다.

나와 전인권의 마지막 만남은 술집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는 전인권과 내가 불평등하게 만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도 '폼'을 잡지 않았다. 단둘이 만날 때는 물론이고 동향사람,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 그리고 다른 선후배들과 만날 때에도 그는 나를 평등하게 대했다. 이 자리에서 나는 그의 가정사와 병력病歷을 들을 수 있었고 내면의 은밀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누군가 전인권을 '방랑시인'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다. 그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표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는 그가 2, 3년 전까지 고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 80cc 오토바이에 헬멧으로 무장한 정치학자의 모습에서 이상하게도 나는 한 곳에 매이지 않고 방랑하는, 탈권위적인 전인권을 보았다.

그에 대한 나의 바람을 언급함으로써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전인권은 여러 면을 가졌으며, 동시에 한 명의 인간이다. 시사정치평론가, 미술평론가, 정치학자이기에 그는 한 명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고민으로 일관된 것이란 점에서 한 명이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한 명의 정치학자로 남기를 바란다. 이것은 나의 이기심 때문인데, 것처럼 상상력이 풍부한 정치학자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바람은 쉽게 실현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전인권도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남자의 탄생> 서문에서 "주변 사람들은 내가 그저 예술을 사랑해서 이종섭 책을 썼으려니 생각하지만 나로서는 시종일관 정치학자의 의식을 갖고 쓴 책이다. 이 책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정체성을 규명해 보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그 정체성에는 대한민국이 빠질 수 없었다. 한국의 가족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이종섭만큼이나 좋은 연구대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나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다. 하나는 한국의 근본문제와 싸웠으면 한다. 이론에 꿰어 맞춰 인식된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인권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직접 묘사된 우리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비판작업을 보고 싶다. 좀더 솔직하고 좀더 자유롭고 좀더 치열해서 그가 소통의 정치학을 완성해 나가는 지식인이 되었으면 한다. 두 번째는 좀더 여유를 갖고 후속 연구를 지속했으면 한다. 그는 지금 연구의 중간 또는 종착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방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 출발점에서 있다. 나는 전인권이 그동안 출판한 책으로 '스타'의 대접을 받기보다는, 잠시 미룬 박정희와 새로운 문제들을 '맞나고' '폼나게' 책으로 엮어 새로운 공론장에 나오길 기대한다. 